

# 미국의 종교성과 신보수주의의 담론적 함의



김두진 (고려대학교)

## I. 서론

본 논문은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 정책을 미국 국가의 종교성의 맥락에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신보수주의가 빈번히 기독교복음주의에 의해 심대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Baumgartner, Francia and Morris, 2009) 그리고 자주 신보수주의는 곧 복음주의자를 지칭하는 등식관계로 보려는 성향이 강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정책 중 특히 외교정책이 과도하리만큼 종교적 수사(rhetoric)로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보수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의 심대한 지지를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려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경우, 정치적 리더로서 공식에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사례가 있어 왔다. 이러한 그의 개인적인 행동이 정교분리의 거대한 틀을 까닭없이 깨려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로 비칠 때가 많았다. 따라서 부시대통령이 정치인이기에 앞서, 개인적으로는 위험스럽고 편협된 종교인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Wallis, 2009). 이러한 부시의 태도 때문

에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박은진, 2006). 가끔 부시의 개인적 신앙관에 따른 정책노선과 이념들이 '제국의 신학' (theology of empire)으로 지칭되었다. 곧 부시의 종교적 배경이 곧 부시의 정책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김지석, 2004).

이러한 종교적 쟁점이 미국외교정책의 큰 화두로 등장하게 된 더욱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9.11 테러 사건이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성은 다시 한번 미국사회에서 뜨거운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6년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서 미드(Mead)는, 종교가 미국의 정치나 정책, 혹은 미국의 정체성과 문화에 큰 요인을 작용해왔다고 주장하였다(미드, 2007). 더욱이 미국의 부시정권하에서 신보수주의의 등장은 바로 공화당내의 기독교 우파의 등장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의 정교(政敎) 분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분석하려는 학문적 시도가 나타났다(유성진, 2008). 본 논문에서 필자의 입장은 부시의 정책이 복음주의적 프로테스탄트, 특히 기독교 우파의 영향력을 너무 절대적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려고 한다. 미국의 기독교를 너무 단일집결된(monolithic)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국의 정치와 종교의 연계성을 정교분리원리의 맥락에서 살펴본 이후에 다음의 몇 가지 주요 쟁점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정교분리의 실제와 특징은 무엇인가? 여기서 미국 신보수주의의 종교성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정교분리의 담론적 논쟁을 미국적 맥락에서 살펴 볼 것이다.

둘째, 미국 정치의 보수화 경향에서 기독교, 특히 기독교우파와 미국 신보수주의 정책은 필연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함의를 미국의 국가종교성의 맥락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살펴 볼 것이다.

국가의 역사성에 따라 정교분리사상 역시 개별국가의 특수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와 원칙으로 수용내지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교분리의 논쟁이 종결된 원칙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논쟁의 불씨를 배태하고 있는 쟁점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경험적 자료의 해석이 상당히 작위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밝히고, 경험적 자료의 적확성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내용 전개에 있어서는, 먼저 정교분리론을 둘러싼 주요 논쟁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정교분리원칙과 시민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보수주의와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한 제 논쟁을 분석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 II. '정교분리론' : 정치와 종교의 연계성 논쟁

국가의 정교분리의 원칙이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드바쉬와 폰티가 주장했듯이, '정교분리'는 '정교분리주의'와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국가의 정교분리는 모든 국가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아니다. 영국의 경우는 오히려 역사적 이유 때문에 교회와 국가는 거의 연합되어 있었다(드바쉬·폰티에, 2004: 29). 종교사회학자 버거(Berger, 2002: 15) 역시 사회적 차원에서 종교의 세속화가 반드시 개인의 의식 차원에서 세속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세속화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입장에서 종교는 다루어져야 하고 통제되어야 할 제도로 인식될 때가 있었다.

한편으로 교회는 흔히 기존의 정치질서와 유착된 경우가 많았다. 대체적으로 카톨릭 보수주의는 국가의 관계에서 연합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제 3 세계의 경우 근대화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교회는 국가와 갈등관계에 놓일 때도 있었다. 즉, 종교나 교회가 정치세력으로부터 위협받는 위치에 서게 될 때, 그들은 곧바로 국가를 향해 위험한 대항 세력으로 등장할 힘을 갖춘 제도적 원천일 때가 있었다(김녕, 1996: 17; 41-42).

정치와 종교의 연계성의 문제는 설정하는 논의의 범주에 따라 매우 복잡한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빈번한 사상적 논쟁을 야기시켰던 왕권신수설은 정교일치론의 한 유형이다. 정교일치론이란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일치하든지, 종교가 정치의 상위를 갖는지 아니면 정치가 종교에 비해 우위를 점하든지, 양자가 서로 결합된 상태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외형적으로 왕권신수설의 경우 종교가 정치의 상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나, 실상은 정치가 종교의 상위에 있고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고 이용하려는데 있다. 곧 종교가 신과 교류하려는 인간의 내면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의 이름으로 통치자가 인간의 내면까지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다(紫田敏夫, 1988: 36-37).

18세기 이후 계몽사상의 발달로 종교에 대한 관용주의가 나타나고 종교는 개인의 의사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것은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종래의 관념을 깨뜨린 것이다. 그동안 정치나 종교나, 국가나 교회나 라는 상호 우위 점유에 대한 싸움에서 이제는 둘간의 타협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정치)와 교회(종교)의 관계는 대립과 상극의 부정적인 대결관계를 포기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정교분리의 원칙은 일정한 국내법에서 신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제도로서의 특권적인 종교( 예를 들면 카톨릭)는 사라지게 되었다(김성식, 1962: 28-30).

1648년 독일에서는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유럽의 정치질서에 커다란 재편을 가

저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종교의 측면에서 로마 카톨릭과 새로운 복음주의 신앙이 완전히 동등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로마 카톨릭이 유일한 종교로 인정되었던 범례가 사라지고 각 영토의 종교가 그 영토의 국가교회로 허용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양자의 관계는 각기 중대한 역할 때문에 완전한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역사상 종교는 국민적 통합 이데올로기로서 통합된 사회를 상징화하고, 또 기존 사회의 질서를 의미있게 정당화 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에 기여해 왔다 (김중서, 2003: 333).

紫田敏夫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1)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거나 융합하는 유형 2) 정치 혹은 종교 어느 쪽인가가 다른 한쪽을 이용 혹은 종속시키는 유형, 3) 정치와 종교가 긴장 혹은 대립관계에 서는 유형이 그것이다. 여기서 세 번째 유형이 역사적으로 유럽 기독교에서 '신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의 과정에서 교회와 국가와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 정치의 차원(dimension)이 없는 종교이거나, 종교의 차원(dimension)을 갖지 않는 정치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紫田敏夫 1988, 205-207).

드바쉬·퐁티에는 '정교분리'와 '정교분리주의'라는 두 용어와 성격을 엄격히 구분할 것을 강조한다. 드바쉬와 퐁티에는 비록 '정교분리'와 '정교분리주의'의 의미가 비록 상호 중첩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적 상황과 그 적용범위에 따라 과격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정교분리주의'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뛰어넘어 반(反)기독교적이고 반(反)교회 운동(movem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정교분리는 정교분리주의로 변형 내지 변질될 수 있다. 이 정교분리주의는 정교분리의 퇴보에 해당한다...(중략) 정교분리주의가 다소 종교적 성격을 띠는 어떤 신앙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중략)...정교분리주의는 모든 제도로부터 교회의 영향을 뿌리채 뽑으려 한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투쟁을 의미한다....교회에 우호적이면 공화주의자가 될 수 없고, 공화주의자가 되려면 교회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 교회는 타도되어야 할 적(敵)이다 (드바쉬·퐁티에, 2004: 31).

반면에 또 하나의 위험성으로 김볼(Kimball)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종교나 교회가 자신들의 종교의 가르침과 신앙을 '절대적인' 진리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때 종교는 사악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절대적인 진리로 무장한 종교인들은 폭력적인 극단주의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 '종교'는 파괴적이고 잔인한 행동, 불관용이나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폭력적인 행동을 내포하는 것이다 (김볼 2002, 30; 69).

미국과는 달리, 지난 2세기 동안 서구 유럽사회는 근대화되면서 종교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쇠퇴되어 왔다고 평가된다. 외형적으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현송,

2009: 148). 데이비는 유럽사람이 덜 종교적이라기 보다는 다르게 종교적이라고 표현한다. 데이비에 의하면, 서유럽사람들을 탈교회화된(unchurched) 사람들이라고 본다. 교회의 출석률이 현저히 감소했다 할지라도 (특히 북부개신교에서) 이것이 종교적 신앙의 포기라 이어지지 않는다. 대다수의 유럽사람들이 제도종교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깊은 종교적 성향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소속감없는 신앙"(believing without belongings)의 형태를 띠고 있다(데이비, 2002).

현실적으로 전체 기독교 신자들은 일상의 정치에 무관심할 수 없다. 반대로 정치인들은 기독교신자들의 투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유럽적 전통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드바쉬와 퐁티에는 교회가 공권력의 중립성의 한계를 과도히 벗어난 정치참여는 배제해야 하나,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자 한다. 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교회는 정치 분야에 개입하여 국가의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드바쉬·퐁티에, 2004: 36).

### III. 미국의 정교분리 : 시민종교(civil religion)로서의 기독교

미국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보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정교분리는 절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것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 이것이 곧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정교분리'의 원칙은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아니다.

먼저 미국의 사례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사례 비교 측면에서 우리는 정교분리의 주요 원칙이나 특징이 역사적으로 유럽의 경우에는 어떻게 달리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1905년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위한 법"(Loi relatif a la se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에 의해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이룩하였다. 1905년 당시 수상인 Combe의 이름을 따서 소위 "Loi Combe"법이 제정되어 정교분리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법은 당시의 교황인 Pius X로부터 저주를 선언받았고 수년동안 국가와 카톨릭교회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1904년 바티칸은 프랑스와 국교를 단절하였고, 카톨릭에 충실한 시민들은 이들 법에 거센 저항을 보였다. 그 이전에 1902년 7월법을 통해 국가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약 3000개의 모든 카톨릭 학교의 폐쇄가 결정되었다.

독일의 종교와 국가의 분리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다. 동 헌법은 제 135조부터 제139조까지, 그리고 제140조에서 종교와 국가에 대한 조항을 규율하고 있다. 제 137조 제 1항에서 “어떠한 국가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Es besteht keine Staatskirche)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는 어떠한 종교단체와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확립하였다. 현재 독일에서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파트너적” 관계로 파악된다 (신옥주, 2008: 307).

반면에 미국은 헌법적으로 어떤 형태의 종교나 종파가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개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인류 사상 최초로 헌법에 정교분리를 명기한 국가로서, 1789년 미국 연방 헌법 제정 당시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1791년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이라는 이름으로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수정조항을 추가하였다. 미국 연방 수정 헌법 제 1 조는 “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법적인 의미에서 볼 때 미국은 결코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없다 (박은진, 2006: 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무엘 헌팅턴이 지적했듯이, 매우 종교적인 국가이다 (Huntington, 2005). 헌팅턴에 의하면, 미국 헌법의 입안자들은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종교를 보호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교를 금지시켰다. 미국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모든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었고, 이러한 자유의 보장을 위해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속국가는 인간사의 세속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며, 인간들의 양심의 문제나 영적이고 종교적인 문제가 통제되지 않도록 교회와 국가는 각자 고유한 영역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헌팅턴의 표현했듯이, 종교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religion)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종교를 위한 자유(freedom for religion)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Huntington, 2005: 85).

이런 점은 유럽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다. 당시 유럽인들은 자국에 비해서 미국인들이 종교에 상당히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토크빌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미국사회의 종교적 측면 이었다. 토크빌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종교와 자유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본 데 비하여, 미국인들에게는 종교의 정신과 자유의 정신은 놀랍게 잘 조화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미국에서 종교란 곧 정치제도의 일차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었다 (토크빌, 1983; Huntington, 2005: 85). 이처럼 종교와 관련된 미국적 특성이 바로 미국의 ‘예외주의’ 의 한 단면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Huntington, 2005: 86).

나아가서, 흥미로운 사실은 정교분리 원칙이 서로 다른 역사적, 사회적 구조와 경험에 따라, 또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철저한 세속주의에 근

거하여 국교 부인 및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기독교가 사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 미국과 독일의 경우 국가와 종교의 완전한 이분화, 즉 양자간의 완전한 분리는 실제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양자는 상호보완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최윤철, 2004; 강휘원, 2006). 따라서 미국의 정교분리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분리”이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강휘원, 2006: 45).

이런 상황을 일본의 학자 모리 고이치는, 미국에는 법적으로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국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국교가 다양성이 강한 미국을 통합하는

**미국에서는 종교의 영향력이 생활 태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이 국민의 정서에 깔려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고이치, 2003: 143). 그는 미국의 정교분리를 정치와 종교와의 엄격한 분리(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가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특정한 종교 조직과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로 인식하고 있다(고이치, 2003: 142). 벨라하는 이러한 미국 종교의 성격을 ‘시민종교’로 파악하고 있다 (Bellah, 2005). 이러한 상호관계로 인해 시민종교와 공적 영역간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상호간에 문제점을 야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Thiemann, 1996).

토크빌은 시민종교를 파악하면서, 미국 종교의 특징의 하나를 ‘전면적 침투성’ 이이라고 보았다. 그는 미국에서처럼 기독교 신앙이 인간 정신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다고 보았다. 미국에서는 종교의 영향력이 생활 태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이 국민의 정서에 깔려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토크빌에 의하면, “영국계 아메리카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심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신봉하며 다른 사람들은 비신앙인으로 의심받을까 두려워서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채 보편적 승인에 따라서 지배한다”고 보았다 (토크빌, 1983: 290). 19세기초부터 1990년 중반까지는 미국은 기독교 세계에서 교회 출석률이라는 지표상으로는 가장 ‘종교적인’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김성건, 1994).

더구나 토크빌은 미국의 종교가 하나의 정치제도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자 한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인식하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결합 즉 ‘시민종교’는 기본적으로 ‘제도적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토크빌의 주장은 “종교는 통치에 전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그들의 정치제도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토크빌, 1983: 291)고 결론짓고 있다.



시민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사회통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더욱이 독립혁명기에 미국 기독교는 공동체적, 정치적, 도덕적 정체성을 인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기독교는 미국의 정체성을 존속시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도록 애국심을 고취시켰던 시민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최근에 지나친 자기 의 (self-righteousness)에 빠지게 되어 오히려 미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비판받고 있다 (박은진, 2006: 133).

미국에서 국가와 종교간의 관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정교의 분리가 곧 종교적 견해가 정치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Harrington, 2006). 또한 미국의 선거에서 공화당은 종교적(기독교적) 쟁점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민주당이 그동안 종교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Bolce & Maio, 2006; Lerner, 2006; Danforth, 2006).

#### IV. 미국의 신보수주의와 기독교 연관성

미국의 경우에 9.11 테러 이후에, 또 그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는 매우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앙고백은 종교근본주의자로 비쳐 '종교의 정치화'의 논란이 가속화되었다.<sup>1)</sup> 유럽인들은 부시정부하의 미국의 외교정책이 종교의 영향을 심대히 받고 있는 원리주의자로 보아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Choi, 2004). 독일의 퇴리히는 "부시 행정부는 정치적 판단기준을 종교적인 판단기준과 동일시한다"고 비난했다. 곧 종교적인 선과 악의 이분법에 의해 정치적인 동지와 적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퇴리히, 2007:16). 이어 퇴리히는 "미국에서 정치와 민주주의는 종교를 통해 하나가 된다"고 하여, "미국적 민주주의는 종교적 의미를 지닌 명칭"이라고 비판했다 (퇴리히, 2007: 100).

이렇듯 부시의 외교정책은 자주 '복음주의 외교정책' (evangelized foreign policy)이라고 표현되었다(LaFranchi, 2006; Pew Research Center, 2006). 2008년도 11월에 바체비치는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복음주의적 외교정책은 끝이 났다"라고 설파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부시대통령의 종교성을 꼬집기 위해, 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스승 (philosopher)으로 삼았다면,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인 라인

1) 2000년 대통령 후보로서 부시는 "당신의 인생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사실 미국 정치인의 이런 류의 신앙고백은 부시대통령 이전에도 있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 국무장관 존 포스터 딜레스는 미국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세계선교는 우리의 중심과제였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홀드 니이버의 신봉자라고 빗대어 말한 적이 있다 (Bacevich, 2008).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9.11 사태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이슬람교를 종교적으로 적대시 한 적은 없었다. 그는 이슬람교를 "평화를 전파하는 위대한 종교"라고 한 반면에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테러리스트들을 결코 "종교적인" (religious)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Kaufman, 2007). 부시는 외교적 수사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이슬람종교와 무관한 집단임을 강조하여, 이슬람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점차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1960년대에 비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팅턴에 의하면, 1960년대에 53%의 미국인들은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장이었고, 40%는 정치 개입에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그 성향이 역전되어서, 54%의 미국인들이 교회가 정치 및 사회적 이슈에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을 한 반면에, 43%가 반대하고 있다 (Huntington, 2005).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기원을 살펴보는 기존의 시각 세 가지를 살펴 보면, 하나는 최근에 두드러진 견해로 기독교 우파 복음주의 영향으로 보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레비 스트라우스의 철학에 기반을 두는 입장이 있다. 마지막 견해로는 9.11 테러라는 "우연한 사건"이 신보수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부상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입장이 있다.

첫 번째의 사례로 김지석의 경우, 미국의 보수파는 구보수파 또는 전통적 보수파, 신보수파(네오콘), 기독교 우파, 온건 공화당원, 신자유주의 등 다섯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부시행정부는 네오콘과 기독교 우파의 동맹으로 보았다. 그중에 기독교 우파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공화당의 중요 근거지인 남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김지석, 2004).

〈표-1〉 기독교 우파 공화당원과 그렇지 않은 공화당원의 입장 차이 :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 참여는	기독교우파 공화당원	그렇지 않은 공화당원	이라크 파병 미군은...	기독교우파 공화당원	그렇지 않은 공화당원
잘한 일	82.6 (76)	70.9 (146)	오래머물러야	78.3 (72)	69.4 (143)
잘못된 일	17.4 (16)	24.8 (51)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17.4 (16)	26.2 (5.4)
모름/무응답	0 (0)	4.4 (9)	모름/무응답	4.4 (4)	4.4 (9)
합계	(92)	(206)	합계	(92)	(206)

(출처 : 유성진 (2008: 163).)

기독교우파는 부시 당선에 기여하는 등 각종 선거 등에서 미국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공화당과는 공생관계에 있어 2000년 대선에서 매주 두 번 이상 교회에 가는 사람 중 63%가 부시를 찍었지만, 앨 고어 민주당 후보를 찍은 유권자

는 3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김지석, 2004). 과연 기독교 우파가 부시의 신보수주의 정책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가?

시기적으로 미국에서 기독교 우파의 정치참여는 1980년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보수적 성향의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기독교 우파”(New Christian Rights)를 결성하여 보수적 종교 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통 도덕의 가치 회복을 외쳤던 레이건의 등장이다. 더욱이 기독교 우파세력이 기여한 것은, 기독교 우파를 가시적인 정치 세력으로 부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이다. 즉 가치갈등 이슈를 중심으로 종교지도자들이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종교적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보수적 기독교 우파의 현실정치 참여는 이들에 대한 다른 사회세력의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기독교 우파의 성공이 오히려 기독교 우파의 세력 약화를 가져오는 아이러니를 낳게 되었다. 지나친 현실정치의 개입으로 기독교 우파 내부의 분열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종교적 원칙과 교리에 보다 충실하고자 하는 주장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실패한 기독교 우파 지도자였던 팻 로버터슨 목사의 사례가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계기를 가져왔다(유성진, 2008:155-156).

또한 지난 2세기 동안 서구 유럽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종교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물질주의, 편의주의, 개인주의 가치가 팽배한 미국에서 신에 대한 믿음이나 출석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세속화의 영향이 없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에 대한 태도에서 ‘불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의 등장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종교성이 희박하며,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자라고 하기에는 아직 신성(deity)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갖고 있는 부류이다. 2006년에는 종교가 없다는 비율이 성인 인구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이현송, 2009: 147-149).

신보수주의와 기독교 우파의 지지로 신보수주의가 득세했다는 주장은 주의깊게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험적으로 공화당 내의 기독교 우파와 기독교 우파가 아닌 공화당원의 입장은 주요 이슈에 따라 어떤 지지성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1>에 의하면, 여러 쟁점중에서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독교 우파의 입장이 비기독교 우파의 공화당원에 비해 다소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라크 전쟁의 참여에 관해 잘한 일이라고 보는 견해가 기독교 우파 공화당원이 82.6%, 그렇지 않은 당원이 70.9%, 그리고 이라크 파병 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이 78.3%,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69.4%를 각각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독교 우파 당원이 그렇지 않은 당원에 비해 다

소 높은 비율로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적 외교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성진의 분석이, 기독교 우파가 그렇지 않은 당원에 비해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압도적으로 좌지우지할 위치에 있었는지를 확실히 증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sup>2)</sup>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 우파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 우파의 등장으로 인해 공화당의 정치적 정향이 일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 우파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유성진의 시각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강명세에 의하면, 공화당은 남북전쟁 이후 1950년 대까지 남부 이외의 지역에서는 평균 60%의 지지를 받은 반면 남부에서 한석도 얻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기 50년 전 남부는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반면에, 부시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남부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곧 공화당의 우경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강명세, 2006). 즉 강명세의 경우, 최근 남부로부터의 지지획득이 바로 부시 정권의 우경화를 가져온 남침례교 계통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현송은, 2009년도 4월 28일 New York Times 기사를 인용하여, 미국 남부의 거주자가 증가하고, 이들이 북부 거주자에 비해 종교성이 높다는 이유로 남부의 지지가 높으면 미국의 종교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이현송, 2009: 174).

남부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종교적인 사람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근래 북부 혹은 해외에서 남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증가하면서 남부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부 지역의 대표적 중심지인 애틀랜타의 경우 근래로 오면서 산업구조는 물론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나 종교성에 이르기까지 북부의 대도시와 근접해간다는 보고가 나온다. 현재 남부 거주자가 북부 거주자 보다 종교성이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전체적으로 종교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신보수주의의 다른 해석의 하나는, 그 기원을 레오 스트라우스의 절대적 도덕관에서 찾는 경우이다. 안병진에 의하면, 9.11 사태 이후 미국 외교의 본격적인 이념체계의 하나로 등장한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근원이 시카고 대학의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에 있다는 것이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평등 보다는 도덕적 가치, 절대선, 기독교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절대적 도덕관은 국제관계에 있어

2) 이것은 이라크 전쟁의 이슈와 아닌, 낙태의 허용에 대해서 <기독교 우파 공화당원>이 3.3%를 지지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공화당원>이 20.9%를 지지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서 부시의 '악의 축' 발언처럼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선과 악의 대결로 본다. 그 결과 이런 도덕관은 현실주의자처럼 힘의 균형에 만족하기 보다는 적의 궤멸을 선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스트라우스는 흡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 대한 인식을 수용하여, 힘에 대한 강조와 통치자의 공포의 정치를 강조했다. 나아가서, 종교에 관해서 팍스가 종교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아편이라고 보았다면, 스트라우스는 긍정적인 기능에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보았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 시민의 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활동에 종교성을 회복할 것을 강조해 왔다 (안병진, 2004).

마지막으로 주목받을 만한 시각으로, 신보수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부상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됨으로써 그 결과로 신보수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보려는 관점이다. 이런 견해의 중요성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보수주의의 등장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보수주의를 그 이념의 실천자들이 의도적으로 고안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다는 9.11 테러라는 "우연한 사건과 위기"로 인해 조성된 것으로 보려는 것이다 (마상윤, 2005).

나아가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입이 종종 그 결정 과정에 종교적 요인이 결정적인가에 대한 쟁점이 분석의 초점이 되었다.

〈표-2〉 미국의 정치적 성향과 이라크전에 관한 태도의 관계

이데올로기	이라크 무장해제 a	이라크 침공	이슬람에 관한태도c
강한 보수주의자	96%	68%	62%
보수주의자	85%	65%	47%
온건주의자	82%	53%	4%
진보주의자	64%	36%	28%
강한 진보주의자	52%	19%	27%
정당성향	이라크 무장해제	이라크 침공	이슬람에 관한태도
공화당원	89%	72%	50%
온건 공화당원	87%	73%	41%
중립표명	74%	45%	31%
온건 민주당원	70%	35%	31%
민주당원	75%	41%	32%

〈출처 : Gallup/CNN/USA Today 여론조사 (2002년 12월 9-10일), Smid(2005)에서 재인용〉

- \* 주
- a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이라크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으로 보는 성향집단
- b 이라크 침공을 우호적으로 보는 성향집단
- c 다른 종교에 비해 이슬람교가 폭력을 조장하는 종교로 보는 성향집단

〈표 2〉에 따르면, '이라크 무장해제'에 대해 이데올로기 성향별 그룹내의 지지도를 살펴 볼 때, 일반 보수주의자(85%), 흔히 기독교 복음주의자 그룹으로 분류되는 강한 보수주

의자(96%)로 나타내고 있다.<sup>3)</sup> 또한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강한보수주의자(68%), 일반 보수주의자(65%)로 불과 3%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 보수주의자의 이라크 전쟁 관련 쟁점에 심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보수주의자의 지지도가 다소 높은 것이, 바로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것은 해석상 별 의미가 없으며,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당성향에서 공화당 우파에 해당하는 공화당원(89%), 온건 공화당(87%)로 나타나고, 이라크 침공에 관해 오히려 온건공화당(73%)이 공화당원(72%)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를 볼 때, 흔히 공화당내의 기독교우파의 그룹의 영향력이 이라크 관련 미국의외교정책에 가장 영향력있는 세력으로 보는 것은 선입견의 작용이라 볼 수 있다.

정치사회 모든 방면에서 종교적 연관성(commitment)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표 2〉의 지지율의 의미는, 미국의 정치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라는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미 외교정책에 영향을 준 것이라 보기 어렵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우경화를 반드시 기독교 우파의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보다 밀도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베르칼즈(Vercals)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부시 대통령 이후에 유럽과 미국간의 갈등의 심화는 부분적으로 종교에 관한 견해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 유럽인들은 부시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기독교와 관련된 단어, 예를 들면 '하나님'(God), '소명'(calling) 혹은 '사명'(mission)과 같은 종교적 언어의 언급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전임자에 비해 현저하게 종교적 언어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미국 외교 정책에 있어 미국 대통령의 종교적 담론의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 이러한 전통은 17세기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며, 미국 외교정책에서 그 가치와 목표가 늘 종교적 언어로 표현되어 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이 세계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민족이라든가, 악을 소멸하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종교적 담론이 미국외교정책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경향이 약화될 수 있지만, 그 저변의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Vercals, 2008: 3-4).

이러한 경향은 미국 외교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는, 자신들의 성적 성향, 전통적 문화 가치의 상실, 혹은 가족들의 연대감의 약화



3) 여기서 말하는 강한 보수주의자는 기독교복음주의자 내지 기독교 우파를 지칭하는 간주된다.

를 비판할 때에도 동일하게 종교적 시각을 제시하며 설득하려고 하였다. 미국인들은 특정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없는 도덕적 절대주의의 언어를 사용해 왔으며, 이것은 곧잘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곤 했다. 점차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신앙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Chernus, 2008: 847-848). 이런 맥락에서 학자들 간에 부시의 신보수주의와 복음주의적 프로테스탄트간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미국 프로테스탄트 주류 혹은 보수주의자들은 오히려 외교정책에서 부시의 빈번한 종교적 담론으로 인해 기독교의 순수성이 세속적 정치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다른 어떤 쟁점에 비해 훨씬 더 종교적 언어의 사용이 빈번했던 중동외교정책 특히 이라크 전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순수한 신앙 자체가 세속적 정치의 명분에 오염되는 것을 우려하는 성향을 드러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외교정책이 종교적 성향을 띄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수적 복음주의자 내지 공화주의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Froese and Mencken, 2009: 112-114).

다른 한편으로 베르칼즈도 언급했듯이, 종종 유럽인들에게 미국 외교의 종교적 영향력의 가장 큰 영향력 집단으로 비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성격은 대부분의 종교집단이 그러하듯이, 상당히 매우 다양하여 분열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다 (Vercals, 2008: 5).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부시행정부와와의 관계에서 단 하나의 결집된(monolithic) 세력이라 볼 수 없다.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들은 하나의 정책처방과 자신들을 바로 동일시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생각보다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드러내는 집단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MaMahon, 2006).

신보수주의는 미국 정치 담론에서 단순하게 특징지을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보수주의는 본질적으로 다면적 형태를 띠는 것이다. 또한 신보수주의의 이념성은 시기적으로 그 성격이 변천되어올 만큼 역사성이 있다.<sup>4)</sup> 이런 점에서 9.11 테러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내 학계 및 언론계에서 본격적으로 회자하기 시작한 신보수주의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손병권, 2005).

나아가서, 9.11 사태는 미국으로 하여금 최소 일정 기간 동안 매우 종교적 수사를 사용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왜냐하면 미국에게 있어 종교적인 중동의 테러행위는 냉전시대의 팍시스트 혹은 공산주의자에 비해 외교적 처방으로 대응함에 있어 훨씬 '낯설은'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9.11 테러 이후 미국이 기본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미국민과 서방세계 및 이슬람세계를 겨냥해 자신의 종교적 집단정체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태도

4) 흥미로운 사실은 197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발행된 사회과학 사전에는 신보수주의란 말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까지도 신보수주의의 의미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그 개념은 다의적이다.

는 새로운 것으로 비칠 지 모르나, 과거로부터 연속성상에 있는 미국사회의 종교성의 한 단면이라고 하겠다 (미드, 2007).

## 6. 결론

현실적으로는 냉전 이후 종교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현상이 등장했다. 시간적으로 21세기의 세계가 20세기의 세계 보다 덜 종교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몇몇 지역은 더욱 '종교적' 이 되었다. 비록 유럽지역이 외형적으로 덜 종교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것은 탈교회화(unchurched)의 현상일 뿐 종교성향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종교는 미국의 정체성과 문화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우리는 미국의 종교가 통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의 정치제도로서 기능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 즉 미국의 정교분리의 원칙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 미국에서 정교분리는 곧 종교적 견해가 정치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정교분리는 모든 국가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아니었다. 따라서 '정교분리' 와 '정교분리주의' 는 구별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정교분리 원칙을 천명해 왔지만, 이 원칙은 다른 역사적, 사회적 구조와 경험에 따라, 또 국가 마다 그 성격이 달리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사회에서는 종교적 호소가 여전히 어느 사회보다 효과가 있다. 미국의 선거에 있어서 공화당이 종교적 관점에서, 즉 기독교적 쟁점에서 정책을 호소하게 될 때, 민주당에 비해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미국 종교의 성격은 '시민종교' 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종교' 와 '정치' 를 분리하려는 노력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미국에서 원론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가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국의 정교분리가 정치와 종교와의 엄격한 분리(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를 뜻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수적 기독교 우파의 등장이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 세력이 외교정책의 가장 적극적인 개입자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우파가 신보수주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우파 세력이 유독 이라크 전쟁의 핵심적인 지지세력이라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기독교 우파 내지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들을 '하나의 결집된' (monolithic) 세력으로



로 볼 수 없다. 현실정치의 개입을 둘러싸고, 기독교 세력은 다면적인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구성된 다양한 집단이다. 기독교 복음주의자 중에는 오히려 자신의 순수 신앙이 세속의 정치 명분에 오염되는 것을 꺼려하는 부류도 존재한다.

종교적 원리주의로부터 미국이 공격을 당한 이후, 미국이 반사적으로 9.11 사태의 대응 방식에서 종교적 근본주의 처럼 보이는 성향을 드러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미국민과 서방세계 및 이슬람을 겨냥해 자신의 종교적 집단의 정체성을 불가피하게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이 미국의 신보수주의가 종교적 색채를 짙게 표명할 수 밖에 없었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시의 외교정책은 기존의 일반 보수주의자들 -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아닌 -에 의해 이미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신보수주의는 집요한 신보수주의 이념의 실천자들에 의한 생성물이라기 보다는, 9.11 테러라는 예상치 않은 위기에 의해 더욱 종교적 색채를 드러낸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등장이 기독교 우파의 등장과 무관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신보수주의가 이들 복음주의적 프로테스탄트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해석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

## 참고문헌

- 김녕(1996) 『한국정치와 교회-국가 갈등』 (서울: 소나무).
- 강명세(2007) “미국정치의 양극화와 공화당의 우경화.” 『세종정책연구』. 3(2).
- 김성건(1994) “또끄빌과 미국의 시민종교.” 『한국사회학』. 28(3). pp. 163-186.
- 김성식(1962) “政教分離論.” 『기독교사상』 (6월). 55호.
- 김종서(2003) “종교와 정치.” 김세균 · 백창재 · 임경훈 편. 『현대 정치의 이해』. 서울: 인간사랑.
- 김지석(2004) 『미국을 파국으로 이끄는 세력에 대한 보고서』. 서울: 교양인.
- 강휘원(2006) “미국 종교의 자유 성립과 보이지 않는 국교.” 『현상과 인식』 (가을)
- 고이치, 모리(2003). “종교국가 미국은 원리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신학과 세계』 46호. pp. 137-154.
- 데이비, 그레이스. (Davie, Grace) (2002). “유럽: 규칙을 입증하는 예외?” 피터 버거 편. 김덕영, 송재룡 옮김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 종교의 부흥과 세계정치』 (The Secularization of the World :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드바쉬, 샤를르 · 폰티에, 장마리 (Debbasch, Charles & Pontier, Jean-Marie). 김형길 ·

- 박균성 · 김재협 역 (2004) 『프랑스 사회와 문화 II』 (서울: 서울대출판부).
- 뢰리히, 빌프리트 이혁배 역 (2007). 『종교 근본주의와 종교분쟁』 (Die Macht der Religionen) (서울: 바이북스).
- 마상윤(2005). 미국 신보수주의의 역사적 배경: 탈냉전에서 이라크 전쟁까지. 남궁 곤 편 『네오콘 프로젝트』(서울: 사회평론).
- 미드, 월터 러셀 남경태 역(2007).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God and Gold) (서울: 김영사).
- 버거, 피터(Berger, Peter) (2002). “세상의 탈세속화: 개관.” 피터 버거 편. 김덕영 · 송재룡 옮김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종교의 부흥과 세계정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박은진(2006). “독립혁명기 미국 기독교의 시민종교화.” 『미국사연구』. 24집. pp. 117-138.
- 손병권(2005). “미국 신보수주의의 역사적 배경: 1930년대에서 레이건 행정부 시기까지.” 남궁 곤 편. 『네오콘 프로젝트』 (서울: 사회평론).
- 신옥주. 2008. “하집착용을 통하여 본 유럽에서의 종교자유에 대한 고찰: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 안병진 (2004).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뿌리와 정치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38(1).
- 유성진 (2008). “미국정치 보수화의 한 단면: 기독교 우파의 부상과 공화당 지지 기반의 재편.” 『국제정치논총』. 48(3). pp. 149-171.
- 이현송(2009). “불분명한 믿음과 미국 사회의 세속화.” 『한국사회학』. 43(4).
- 紫田敏夫 편 (1986). 『政治와 宗教』. 서울: 교양사.
- 최윤철(2004)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공법연구』. 32(3).
- 김볼, 찰스(Kimball, Charles 김승욱 역 (2002). 『종교가 사악해 질 때』(when religion becomes evil) (서울: 에코리브르).
- 토크빌 · 박지동 역(1983). 『미국의 민주주의』 (서울: 한길사).
- Bachvich, Andrew J. (2008). “Evangelical foreign policy is over.” The Boston Globe, November 6.
- Baumgartner, Jody C. , Francia, Peter L., and Morris, Jonathan S. (2009). “A Clash of Civilizations? The Influence of Religion on Public Opin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1(2). pp. 171-179.
- Bellah, Robert N. (2005).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Fall.
- Bolce, L. B. and Maio, G. D. (2006). “American Politics Is Dominated by Battles Between Religious and Secular Voters.” In James D. Torr (ed.) How Does Religion

Influence Politics? New York: Thomson Gale.

- Chernus, Ira (2008) "The War in Iraq and the Academic Study of Relig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6(4), pp. 844-873.
- Choi, Myung-Duk (2004). "The Background of the Christian Right and their involvement in Politics." 『미국사 연구』. 19 집.
- Danforth, John C (2006). "The Republican Party Should Stop Catering to Religious Voters," In James D. Torr (ed.) *How Does Religion Influence Politics?* New York: Thomson Gale.
- Froese, Paul and Mencken, F. Carson (2009). "A U.S. Holy War? The Effects of Religion on Iraq War Policy Attitudes," *Social Science Quarterly*, 90(1), pp. 103-116.
- Harrington, Edward F. (2006).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Does Not Mean That Religious Views Should Be Excluded from Politics." In James D. Torr (ed.) *How Does Religion Influence Politics?* New York: Thomson Gale.
- Huntington, Samuel P. (2005). *Who Are We ? : America's Great Debate*, London: Free Press.
- Kaufman, Stephen (2007). "Bush Says Islam Is a Great Religion that Preaches Peace." <http://www.america.gov/st/peopleplace-english/2007/October/2007...>(검색일 2009. 5. 12).
- Lerner, Michael (2006). "The Democratic Party Should Appeal to Religious Voters." In James D. Torr (ed.) *How Does Religion Influence Politics?* New York: Thomson Gale.
- Mamahon, Robert (2006). "Christian Evangelicals and U.S Foreign Policy." [http://www.cfr.org/publication/11341/christian\\_evangelicals\\_and\\_us\\_f...](http://www.cfr.org/publication/11341/christian_evangelicals_and_us_f...) (검색일 2009. 7. 8)
- Smidt, Corwin E (2005). "Religion and American Attitude Toward Islam and an Invasion of Iraq." *Sociology of Religion*, 66(3), pp. 243-261.
- Thiemann, Ronald F. (1996). *Religion in Public Lif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Vercals, Kirsten(2008). "Religion and its Impact on Foreign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ssue Brief, February.
- Wallis, Jim(2009). *Dangerous Religion -Bush's Theology of Empire*. <http://www.informationclearinghouse.info/article5402.htm> (검색일 2009. 5. 12).

● 투고일 : 2011. 04. 13 / 심사일 : 2011. 04. 15 / 게재확정일 : 2011. 04. 29